

영어의 서법 조동사 Will/Shall에 관한 연구

강 문 구
(공주대학교)

Kang, Mun-koo. (2006). A study on the English modal auxiliary Will/Shall.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2(3), 99-12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the meanings and uses of the English auxiliaries SHALL/WILL. The complexity of modern usage of SHALL/WILL has been one of the most disputable themes of traditional English grammar. The paper purported to address the study and analysis of diachronic and synchronic approach to the two auxiliaries. A general view of the figures of Fries'(1925) survey was added for further investig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se auxiliaries express some of various modal meanings associated with the volitional or emotional attitude of the speaker without implying futurity. The findings also suggested that the use of SHALL in present-day English is restricted to non-volitional future with the first person but the practice of this use is also diminished by the expansion of the use of WILL, and the original meaning of WILL, 'to desire or wish', has generally been replaced by other verbs or modal forms. But sentences which seem to indicate futurity are often tinged with modal senses. Therefore, WILL/SHALL should be considered to act either as tense auxiliary or as modal auxiliary depending on situational contexts in which it occurs.

[modal auxiliary/tense auxiliary/diachronic approach/synchronic approach, 서법 조동사/시제 조동사/통시적 접근/공시적 접근]

I. 서론

게르만어는 원래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시제의 형태가 현재형과 과거형밖에 없

었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생활이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시제 조동사(tense auxiliaries)가 등장하게 되었고 동사의 굴절형의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시간적 관계를 보다 분명히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 고대 영어에서는 본래 본동사(full verbs)이던 *sculan* 'to be under obligation'과 *willan* 'to will, wish'을 가지고 미래 시제형을 만들게 되었다. 그렇지만 *sculan*은 'to owe, must, to oblige' 등의 뜻이 있었고 *willan*은 'to will, wish' 등의 뜻을 지니고 있었던 본동사였기 때문에,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동시에 본래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하지 않고 함축되어 나타났는데 현대 영어에서 WILL과 SHALL의 용법이 까다롭게 된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나아가, 본래의 뜻이 여러 인칭과 결합되어 나타날 때는 그 의미가 복잡하고 섬세하여 화자와 청자의 심리적 상태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서법성(modality)의 영역까지 확장되었다. 예를 들어 'He shall die.'에서 *shall*은 미래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본동사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 'He must die.'의 뜻도 포함하고 있다. WILL의 경우도 화자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I will send my sons to Harvard no matter what happens.'에서는 화자의 결연한 결심이 잘 나타나 있다. 뿐만 아니라, 조동사 WILL과 SHALL은 대표적인 미래 조동사로서 동사 중심의 언어인 영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단순히 문법상의 미래 시제(simple future)를 나타내는 조동사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서법 조동사(modal auxiliaries)로서 화자(addresser)와 청자(addressee)사이의 화용론적 관계를 나타내는 표지로서도 역할을 한다.

음운론, 형태론, 구문론, 의미론, 화용론의 여러 분야 중에서 화자와 청자의 의사소통 능력이 최종의 목표라 한다면, 화용론의 대두는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화용론적 견지에서 볼 때, 현대 영어에서 WILL과 SHALL은 의사소통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 발화에서 문법 주어와 그 화자가 일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WILL과 SHALL의 서법성, 즉 서법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핵심이라 볼 수 있다(임병민과 구양숙, 2004; 김부자, 2006).

역사적으로 볼 때 WILL과 SHALL의 용법이 현대 영어의 용법으로 확립된 시기는 17세기 중엽이다. Wallis(1653)는 미래에 대한 소위 전통적인 규칙 — 단순 미래: shall, will, will; 의지 미래: will, shall, shall — 을 공표하였다. 18, 19세기를 거치면서 용법에서 많은 혼동이 있었지만 그것은 방언 차이를 인정한다면 거의 이해될 수 있는 것이었다.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영어에서 인칭에 관계없이 WILL이 쓰이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 영어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20세기 초 Fries(1925)는 드라마와 희곡에서 용례를 발췌해 그 이전에 나타난 규범적 용법을 '자의적' 또는 '인위적'이라고 비판하고 기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물론 Fries의 연구는 구조주의적 관점에 기초한 것이므로 오류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당시로서

는 가치 혁신적 연구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법 조동사 WILL/SHALL의 사용 사례를 통시적·공시적 관점에서 고찰하되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된 용법을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올바른 용법을 정립시키고자 한다.

II. WILL/SHALL의 통시적 연구

1. 고대 영어와 중세 영어의 WILL/SHALL의 용법

널리 알려진 것처럼 고대 영어 시대에는 독립된 미래 시제형이 없었으며 현재 시제형이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와 더불어 미래의 의미를 표현하였다. 그래서 고대 영어에서는 라틴어 미래를 번역할 때 현재 시제를 사용하였고, 노르만 정복 때까지 지속되었다. Ælfric는 현재형을 미래 표시의 적절한 문법적 범주로 인정하였으며, Maetzer(1865)도 두 조동사가 서법적 의미가 없이 순수 미래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예에서 미래 지향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있었는데, Ælfric의 *Pastoral Care*나 Orosius에서 미래의 함축적 의미가 나타나 있다고 한다. 결국 고대 영어에서는 SHALL의 미래 표시는 강한 서법적 의미 때문에 완전한 시제 조동사라기보다는 시제적이면서 서법적인 이중의 성격을 지닌 것 같다.

1) WILL/SHALL의 기원

중세 영어 시대에는 *wille*뿐만 아니라 *wolle*, *wole*, *wulle*, *wule*의 유형이 존재하다가 초기 현대 영어 시대에 와서는 *wol*, *wil*로 통합되어 사용되었으며, 단축형 *won't*(= wount)는 *wol* + *not*에서 만들어진 것이다(Wright & Wright, 1924, p. 195). *wille*와 *wile*은 남서부방언(South-West)인데, *wol*, *wolle*, *wole*는 14세기부터 중부 방언(Milands)에서 쓰이기 시작하였다. 현재 시제 형태인 *wol*은 과거형인 *wolde*에서 새롭게 만들어졌으며, 근대 영어 형태인 *won't*의 모체가 되었고, *wol*은 특히 문어체 영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었는데, Chaucer와 Gower와 같은 작가는 *wil*보다는 *wol*을 더 선호하였다. 북부 방언(Northern dialect)에는 현재 시제형인 *wil*보다는 *wol*이 보다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빈도가 높았던 부정형 *ni*은 현재 단수 1, 3인칭에서 *nil*, *nül*, *nülle*, 단수 2인칭에서 *neltou*, *nültu*, 복수 모든 인칭에서 *nülleþ*, 과거형에서 *nalde*, *nülde*, *naldest* 등이 있었다(Mosse, 1975, p. 850). WILL

의 과거형을 살펴보면, 중세 영어의 *wulde*는 SHALL의 과거형 *schulde*의 유추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wolde*는 강세형인 *wōlde*와 비강세형 *wölde*로 철자되는데, 후자는 근대 영어에 와서 소멸되었다. 15세기 말엽에 $\bar{o} + ld$ 와 같이 결합될 때의 \bar{o} 은 \bar{u} 로 변해서 *wōlde*은 초기 근대 영어에서는 흔히 *wāld*로 발음되었는데, 이 발음이 18세기 말경까지 널리 사용되었으며, 과거형 *wilde*의 모음 *i*는 현재형인 *wille*의 *i*에서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초기 현대 영어 *wāld*로부터 비강세형인 *wu(l)d*가 만들어졌고, 이 *wu(l)d*가 현재에는 강세가 있는 형태로 남게 되었는데, 이 *wu(l)d*에서 새롭게 비강세형인 *wəd*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강세형인 *wu(l)d*와 비강세형 *wəd* 둘 다 *would*로 철자된다(Wright & Wright, 1924, pp. 72-195).

SHALL의 고대 영어 형태인 *sculan*의 *sc*는 본래 후음(guttural)이나 구개 모음(palatal vowel)이 뒤에 이어져서 후음이나 구개음이 되었다가 고대 영어 시기에 구개음이 되었다. 고대 영어 후기나 중세 영어 초기에 *sc*는 [ʃ]의 음가를 지니다가 중세 영어 시기에 대체로 *sch*나 *sh*로 철자되었다(Wright & Wright, 1928, p. 125). 중세 영어 후기에는 강세형 *schaut*과 비강세형 *schal*이 있었는데, 16세기 말경에 *schaut*과 *shaul*은 *shōl*로 되었으며, 중세 영어 이중 모음 *au*는 16세기 말경이나 17세기 초에 중간 단계인 *ou*를 거쳐 \bar{o} 로 단모음화 되었다. *shōl*과 *shal*(=*shæl*)은 18세기까지 널리 사용되다가 *shōl*은 사라지고 *shall*로 철자되는 *shæ*이 비강세형이나 강세형 모두를 대신하여 쓰이게 되었다. *shæ*에서 강세가 없는 *shəl*과 *shl*(철자는 *shall*)이 새롭게 만들어졌으며, *shæ*은 오늘날에는 강세가 붙는 형태로만 사용되고 있다. 2인칭 단수 *shalt*(중세 영어 *schalt*)에서 비강세형 *shəlt*가 만들어졌으며 17세기에 *Int*로 결합될 때는 *l*이 소멸되어 *shan't*와 *won't*가 탄생되었다.

과거형을 살펴보면, 중세 영어 *sholde*는 강세형 *schōlde*와 비강세형 *schölde*의 형태를 띠는데 *schölde*는 현대 영어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15세기 말경에 $\bar{o} + ld$ 로 결합되는 경우에는 $\bar{o} = \bar{u}$ 로 되어 *schōlde*는 초기 현대 영어에서는 항상 *shūld*로 발음되었으며 이 발음이 18세기 말경까지 폭넓게 사용되었다. 초기 현대 영어인 *shūld*로부터 강세를 받지 않는 *sh(u)ld*의 형태가 만들어졌으며 이 *sh(u)ld*가 오늘날에는 강세를 받게 되어 여기에서 비강세형인 *shəd*가 탄생되었다. 북부 방언(Northern dialect)에는 단지 두 개의 형태인, 현재형 *sal*과 과거형 *suld*가 있었고 켄트방언(Kentish)에는 직설법 현재 1, 3인칭에 *ssell*과 *ssoll*의 형태와 복수에 *ssolle*, 과거에 *ssolde*가 있었다(김익태, 1987, pp. 2-10; Wright & Wright, 1924, pp. 59-191; Mosse, 1975, p. 83).

2) SHALL의 용법

SHALL은 고대 영어 *sculan*이 원형이며 *sceal*은 직설법 1인칭, 3인칭에 쓰였는데, 기능적으로 독립된 완전 동사로서 금액을 나타내는 명사나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했으며, 또한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와 쓰여, 본래 'have to pay'나 'to be in a person's debt for'를 의미했는데, 주로 금전적 의무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

(1) 장소, 방향을 나타내는 부가사(adjuncts)와 종종 사용되었는데, 중세 영어 시대 까지 쓰였다.

(2) 'to owe'의 의미

(3) '도덕적 의무' — 'ought': *OED*는 SHALL이 'what is right'나 'becoming'의 의미를 지니며, 중세 영어에 와서는 *should*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4) 필연성 — 'must', 'have to': 고대 영어에서, 빈도가 높진 않지만 중세 영어에서 *sceal*이 필연성(necessity)을 나타내었다.

(5) 의무 — 'will have to', 'is to': 주체가 주어 가 아닌 상대방이나 사물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를 내는 SHALL의 용법인데, 명령, 위협, 혹은 약속의 의미를 지니고, 부정의 경우는 자연스레 금지가 된다.

(6) 명령, 지시: 명령이나 지시된 것은 반드시 미래에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것이기에 미래의 의미가 파생되었다고 여겨지나 여전히 의무나 강제 의미의 의미가 강하게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7) 예측, 예언의 의미: 예측, 예언을 의미하는 SHALL은 중세 영어에서 성경에 많이 등장하였다.

(8) 순수 미래: 조동사 SHALL의 서법적 의미가 약화되어 타인의 의지가 가미되지 않고 순수한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3) WILL의 용법

고대 영어 시대에 WILL역시 SHALL처럼 본동사였으며,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타동사였다. *willan*은 현재의 의지나 결심을 나타내는 독립 동사였으나 15세기 중반이나 16세기경에 폐어가 되었고 과거형 *willed*가 *willian*의 존재를 알려주며(Visser, 1963, p. 1764), 부사와 함께 미래의 의미를 나타냈다.

(1) 장소와 방향을 표시하는 부사와 함께 쓰였으며, 특히 부사 *out*은 현대 영어의 용법에도 나타난다.

(2) 명사나 *that*절을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의 용법 — ‘wish, want’

(3) ‘to desire, wish, want’의 의미: 본동사 WILL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이며, 중세 영어까지 쓰이다가 초기 현대 영어에서는 사라지기 시작하여, 현대 영어에서는 *want*와 같은 소망을 나타내는 동사가 대신하였다.

(4) ‘to determine, intend’의 의미: WILL이 지니는 욕구의 의미가 강화되면 의도나 결심을 나타내게 되고, 그 의미가 약화되면 화자의 자발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여전히 미래의 의미는 없고 현재의 마음 상태를 나타낸다.

(5) ‘be willing to’의 의미: 전술한 바와 같이 WILL이 갖는 의지의 의미가 약화되면 화자의 자발성을 나타내는데, 이 용법은 고대 영어부터 현대 영어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었으며, 1인칭에서는 상대방의 권유나 요청에 대한 응답에서, 2인칭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요청의 의미를 나타낸다.

(6) 반복이나 습관의 의미: 습관적 행위는 대체로 주어의 타고난 기질이나 성향에서 비롯됨으로 주어가 사람이외에도 동물이나 무생물, 추상적인 것도 될 수 있는데, 고대 영어에서 현대 영어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7) 잠재성, 능력의 의미: 능력을 나타내는 WILL의 용법은 순수 미래와 구별하기 어려운데, *OED*는 중세 영어에 생겨난 것으로 예를 들고 있다.

(8) 미래의 의미: WILL이 언제부터 순수한 미래 표시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SHALL과 마찬가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고대 영어에서는 미래 시

제는 현재형으로 표현되었고, WILL은 주로 서법적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순수하게 미래를 표시하는 WILL의 용법은 중세이후로 보는 견해도 있다(Visser, 1963, p. 1692). 그러나 고대 영어에서도 의지의 요소가 전혀 없는 *acuelan*(= die, perish)과 같은 본동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나, 의지가 없는 사물이나 추상적 개념이 주어인 경우에는 순수한 미래 표시의 의미로 간주 할 수 있는 용례들이 있어서, 미래 표시의 용법은 고대 영어에도 존재했다고 볼 수 있으나, 1인칭의 경우는 주어나 화자가 갖는 주관적 의지 때문에, 2, 3인칭과는 달리 뚜렷하지 않다.

2. 초기 현대 영어에서의 WILL/SHALL

길고도 다양한 영문법의 역사에서 조동사 WILL/SHALL의 용법만큼 활발한 논쟁의 대상이 된 예는 드물다. 사실 17세기 이전에는 영문법이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동사 WILL/SHALL 또한 영문법학자들의 주된 관심을 받지 못했다. 17, 18세기 규범 문법학자들에 의해 체계화되긴 했지만 WILL/SHALL의 올바른 사용은 아주 오랫동안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을 혼동시켰고, 옳든 그르든 WILL/SHALL에 대한 규칙이 영문법 책에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초기의 논쟁은 사건에 대한 화자의 태도에 관한 서법성과 미래 표현인 미래성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Mason(1622)은 인칭마다 미래 시제가 다르게 사용되는 이유를 ‘공손 어법’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는데, 즉 SHALL이 원래 ‘owe’의 의미로서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표지로써 사용될 때는 1인칭에서만 적절하고 ‘공손함’을 표현하게 된다. 이는 1인칭의 화자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강제성은 ‘공손’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2, 3인칭에서 SHALL이 적절하지 못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Wallis(1653)는 최초로 서법 조동사 WILL/SHALL에 관해 기념비적인 ‘Wallis Rules’를 제시했다. ‘Wallis Rules’는 처음으로 체계화된 WILL/SHALL의 규칙으로서 그 뒤에 나온 문법서에서 WILL/SHALL의 용법은 그의 규칙을 따랐다. ‘Wallis Rules’의 특징은 화자의 관점에서 용법을 분류한 것인데, 화자의 관점에서 보았기에 1인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그 규칙에서, 화자가 약속을 나타낼 때 1인칭에서 WILL, 2인칭과 3인칭에서 SHALL을 쓰며, 예측을 나타낼 땐 1인칭에서 SHALL, 2인칭과 3인칭에서 WILL을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1) To promise:

I will...

We will...

You shall...	You shall...
He, she, it shall...	They shall...

2) To predict:

I shall...	We shall...
You will...	You will...
He, she, it will...	They will...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Wallis는 WILL/SHALL이 사용된 구문의 차이는 단순히 어휘적, 구문적 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의미론적, 화용론적 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1인칭에서 SHALL은 단순히 미래를 나타내는 반면, WILL은 약속이나 위협을 나타낸다. 2, 3인칭에서 SHALL은 약속이나 위협을 나타내지만, WILL은 순수 미래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I shall burn', 'you will('thou wilt') burn', 'he will burn' ; 'we shall burn', 'ye will burn', 'they will burn'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한다. 반면에, 'I will burn', 'you shall('thou shalt') burn', 'he shall burn', 'we will burn', 'ye shall burn', 'they shall burn'은 일어날 일에 대한 보증이나 약속을 나타낸다(Wallis, 1653, p. 339). 그 후 1세기가 넘게 많은 책자와 의견들이 그의 규칙을 추종했다. 예를 들어 Ward(1765)는 두 조동사가 지니고 있는 원래의 의미(*will*: want, desire; *shall*: owe, obligation)에 충실해 'Wallis Rules'를 상술하였고, 의문문에서 WILL/SHALL의 차이도 설명하였다.

조동사 WILL/SHALL의 용법에서 미국 영어가 영국의 남부 방언과 달리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방언과 유사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며, 그런 증거를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세기 잡지들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미국인들이 영국 표준어(Southern British)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기사를 실고 있다. 또한 아마도 SHALL대신 WILL을 오용하는 것은 스코틀랜드나 북부 아일랜드사람들에 기인되었다는 의견을 담은 기사가 1853년 *Southern Literary Messenger*에 게재되었다. 1870년 익명의 한 작가는 Pennsylvania에서 WILL/SHALL의 오용을 알아냈으며, New England지역의 용법이 나머지 지역과 다르다는 것을 관찰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미국 내의 정착의 역사가 그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초기 버지니아인들은 Cromwellian이었고 Pennsylvania는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인들을 많이 유입시켰다. 주로 1인칭 평서문과 2인칭 의문문에서 WILL의 오용은 '아일랜드 특유어법(hibernicism)'이란 단어를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방언의 견지에서 볼 때 WILL/SHALL의 가장 중요한 연구는 Molly(1897)인데, 그는 WILL/SHALL의 현대적 표현에 집중하지 않고 원래의 의미

만을 찾고 다른 언어와 비교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Molly는 순수하게 용법에 근거해서 그의 연구를 시작했다. 그가 찾아낸 규칙들은 18세기와 19세기 영국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서였고 미리 염두에 둔 언어 이론이나 추상적 문법 원리를 추종하지 않았다. 그는 표준 영국 영어(Standard Southern British)의 화자와 *Anglo-Irish, Scottish English, American English*의 화자 사이의 차이를 솔직하게 받아들였으며, *Irish* 용법과 *American* 용법이 매우 유사하고, 아일랜드 사람들은 미래 시제에서 모든 인칭에 WILL을 쓴다고 말했다. 2인칭 의문문에서 *Shall you?*는 단순히 미래의 사건이므로 단순 미래에 관한 질문이며, *Will you?*는 청자의 현재의 의지일 수도 있고 초대나 부탁일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언어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용법에 충실해야하며, WILL/SHALL의 용법은 어떤 고정되거나 불변의 언어 원칙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점진적인 변화와 발달의 소산이므로 *Irishmen, Scotsmen, Americans, Australians*의 영향력은 시간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결국 Molly는 *Southern British*를 옹호했지만 순수한 방언의 차이를 인정할 만큼 총명하고 박식한 사람이었다.

Sweet(1952)는 영국의 남부 지방에서는 WILL과 SHALL의 복잡한 용법이 점차 자리를 잡아갔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은 그것을 숙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박식한 미국의 언어학자들은 두 조동사의 문제를 주로 방언 변이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법학자들이 실생활의 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단지 미국 영어의 용법과 “standard” *British*의 용법이 다를 뿐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OED*(1912)에서도 *Scottish, Irish*에서 1인칭 단순 미래에서, 1인칭에서 WILL의 사용은 비표준 영어의 표지라고 기록되어 있다.

언어학자 Bradley(1911)는 1인칭에서 SHALL에 대해 관찰하였는데, London, Oxford, Boston 방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I shall’을 말하고, 문학적인 전통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I shall’을 말하며, *Scotchmen, Irishmen, Americans*은 대체적으로 거리낌 없이 ‘I will’을 말한다고 적고 있다. 중세 이후로 지리적, 사회적 차이가 명백히 그런 방언의 차이를 가져왔으며, 보다 격식 있고, 교양 있고, 위신 있는 문화에 속하고 싶다면 그런 방언을 모방하려는 것은 당연한 사실로 보인다.

미국의 문법 학자 Curme(1931)은 SHALL은 완전히 WILL로 바뀌었으며, *Shall I?* (Do you want me to?)는 상대방의 의지를, *Shall you?*(Are you going to?)는 상대방의 계획을 나타낸다고 하며, 방언의 차이가 실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두 조동사의 미국 영어의 용법이 오히려 *British* 용법을 압도한다고 선언하며 단순 미래를 나타낼 때 1인칭에 *will*을 쓰는 것은 *American style*이며 그런 미국식의 표현은 아일랜드 이주자들의 영향이라고 강조했다.

3. WILL/SHALL의 사용 빈도

1) 전통 규칙의 성립

1622년 이전에 발행된 문법서에는 WILL/SHALL이 미래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 부정사와 결합할 때 모든 인칭에서 구별 없이 사용되었는데, Mason(1622)은 미래를 나타내는 WILL과 SHALL을 최초로 구별하였고, Wallis(1653)는 그것을 처음으로 규칙화하였다. 1653년과 1762년 사이에 발행된 문법서들은 1653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두 조동사의 용법을 구별하는데 실패했거나 Wallis의 전통적 규칙을 단순히 반복하는데 그쳤다. Ward(1975)는 두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에 근거하여 WILL/SHALL의 의미와 용법을 처음으로 완전하게 체계화했고 독립 평서문에 쓰인 WILL/SHALL의 일반적 의미와 의문문 1, 3인칭에서 SHALL과 2인칭에서 WILL의 의미뿐만 아니라 복합문과 가정문에서의 의미까지도 언급하였다. 완전한 Ward의 문법이 현대의 교재에 사용될 정도의 표준 규칙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문법가들은 그 이상의 완전한 문법 체계를 제공하지 못했고 몇몇은 Ward(1975)에 반대하여 나중에는 전통적으로 용인된 규칙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과도기를 거쳐 드디어 19세기 초에 독립 평서문, 의문문, 종속절에서 완전한 WILL/SHALL의 규칙이 영문법의 공통된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표준화된 WILL/SHALL의 규칙이 성립되기까지는 약 150년이 걸렸고, 일반적으로 문법 교재에 등장하는 데는 약 2세기가 걸렸다.

2) 영국 드라마에 나타난 WILL/SHALL의 용법 분석(1560-1915)

Fries는 1560년부터 1915년까지 40편의 드라마 텍스트에서 WILL/SHALL를 발췌하여 조사 분석하였는데, 그 예들은 (1) 독립 평서문, (2) 의문문, (3) 종속절로 나눌 수 있다.

(1) 독립 평서문

① 1인칭에 쓰인 WILL/SHALL

1인칭에서 WILL과 SHALL의 용법은 16세기 중엽부터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I (we) will*이 70~93%, *I (we) shall*이 7~30%로 WILL이 SHALL보다 더 자주 사용되었다.

② 2인칭에 쓰인 WILL/SHALL

지난 350년 동안 1인칭에서 WILL과 SHALL의 관계가 안정성을 보인 반면, 2인칭에서의 WILL/SHALL은 16세기의 상황과 정반대되는 결과를 보였다. 16세기에는 SHALL이 80%이상, WILL이 20%이하로 SHALL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가, 18세기에는 두 조동사가 거의 반반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였으나, 19세기에는 2인칭에서 WILL이 SHALL을 점차적으로 대치하다가 현재는 SHALL이 약 20%, WILL이 약 80%로 사용되게 되었다. 2인칭에서 이런 상황은 WILL/SHALL의 서법적 용법은 대략 변화가 없었지만 WILL의 시제 용법의 발달에 기인한다고 볼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 같다.

③ 3인칭에 쓰인 WILL/SHALL

3인칭에서의 WILL/SHALL도 2인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두 조동사의 관계가 불안정하여 WILL이 SHALL로 바뀌는 경향이 있어 16세기에 50: 50이던 두 조동사가 WILL이 약 85%, SHALL이 약 15%의 비율이 되었다. 또한 2인칭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법적 사용보다 시제 용법으로서의 WILL의 발달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의문문

350년 동안 직접의문문에서 WILL/SHALL의 예는 모든 인칭에서 용법의 변화가 없었다. 다음 표는 두 조동사가 나타난 모든 횟수를 약 반세기별로 분류한 것이다.

표 1
반세기별 WILL/SHALL의 빈도수(1557-1915)

	1-W	1-Sh	2-W	2-Sh	3-W	3-Sh
1557-1637.....	3	69	125	2	38	17
1656-1703.....	1	105	129	1	35	10
1713-1768.....	1	80	51	1	40	19
1775-1843.....	4	63	73	3	36	12
1860-1915.....	3	78	127	0	22	7
Total.....	12	395	505	7	171	65

SHALL이 2인칭 독립 평서문에서 80%이상 사용된 반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인칭 의문문에서는 결코 흔하지 않았으나, 1인칭 의문문에서는 독립 평서문에 쓰인 WILL처럼 SHALL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 다음 표 2는 전 기간에 걸쳐 의문문에 쓰인 WILL/SHALL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 수치에서 중요한 두 가지 결

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표 2
의문문에 쓰인 WILL/SHALL의 비율(1557-1915)

	1-W	1-Sh	2-W	2-Sh	3-W	3-Sh
Number.....	12	395	505	7	171	65
Percent.....	2.9	97.1	98.7	1.3	72.5	27.5

첫째, WILL이 1인칭 의문문에서 좀처럼 쓰이지 않지만 위 표에서 약 3%의 수치가 보여주듯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둘째, 표 2에 따르면 2인칭 의문문에서 SHALL이 정상적이라는 일반적 견해 — 특히 *NEW ENGLISH DICTIONARY*에서 — 는 명백히 옳지 않다. 512개의 2인칭 의문문에서 단지 7개 즉 1.3%만이 SHALL을 사용되고 나머지 전부는 WILL이 쓰였다. 1인칭 의문문 총 407개 중에서 *Will I?*가 12개인 것처럼, *Shall you?*는 512개 중에 7개에 불과하다.

III. WILL/SHALL의 공시적 연구

1. 인식적 서법(epistemic modal)과 근원적 서법(root modal)으로서의 WILL/SHALL

Chomsky(1957)이래로 변형생성문법에서는 서법 조동사를 조동사의 하위 범주로 분석해왔는데, 서법 조동사는 다른 조동사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Palmer, 1979, p. 9). 우선 직접 부정어를 연결해 사용할 수 있고(*can't, mustn't*), 조동사 'do'없이도 도치가 가능하며(*can I?, must I?*), 주어가 3인칭인 경우라도 '-s'를 붙일 수 없고(**cans, *musters*), 또한 비정형 형태(non-finite forms)가 될 수 없고(**to can, *musting*), 다른 서법 조동사와 이웃해서 쓰일 수 없다(**may will*).

서법성의 개념을 처음 도입한 사람은 Aristotle이지만 학자들 간에 견해 차이가 많다. 예를 들면, Quirk, Greenbaum, Leech와 Svartvik(1985, p. 219)는 서법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Modality may be defined as the manner in which the meaning of a clause is qualified so as to reflect the speaker's judgment of the likelihood of the proposition it expresses being true.

서법성에 대한 보편타당한 정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서술 내용의 비사실적 상황의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표현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영어의 서법 조동사는 이를 실현하는 하나의 문법적 범주라 볼 수 있다(Lyons, 1977, p. 452). 서법성은 표면적으로는 동사에 주로 관련되지만 문장 전체에 내재된 의미적 구성 요소에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2. WILL/SHALL의 의미론적 접근

1) WILL의 다의성

미래성의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WILL의 의미는 ‘willingness’, ‘intention’, ‘predictability’, ‘prediction’인데, 네 가지 의미가 복잡하게 서로 관련되어 있고, ‘weak’ *epistemic*인 예측이 *root meaning*(‘willingness’/‘intention’)과 ‘strong’ *epistemic*(predictability)사이에서 완충 상태를 이루고 있다.

(1) ‘willingness’

I mean I don't think the bibliography should suffer because we can't find a publisher who will do the whole thing.

(2) ‘intention’

I'll put them in the post today.

(3) ‘predictability’

Your Lordship will know what her age.

(4) ‘prediction’

I think the bulk of this years students will go into industry.

다른 *epistemic modals*와 마찬가지로 *epistemic WILL*이 진행이나 완료와 같은 상과 함께 쓰이는 경우는 *epistemic meaning*에 아주 중요한데, WILL= ‘prediction’이 진행상과 동시에 나타날 경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두 문장을 비교해보면, (5)는 초대인데 *root meaning*을 나타내며 청자의 소망과 관련이 있고, (6)은 청자의 미래 행동에 대한 정보를 묻는 것으로 *epistemic meaning*이다. 따라서 (5)에 대한 대답은 ‘Thank you’나 ‘I'm sorry I can't’에 대한 대답은 ‘Yes’나 ‘No’가 적절

하다.

(5) *Will you come to the party tomorrow?*

(6) *Will you be coming to the party tomorrow?*

*Predictability*는 ‘Whenever x happens, it is predictable that y happens.’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If litmus paper is dipped in acid, it will turn red.), 대체로 강제 없이 쓰이지만 강세를 받는 경우는 의지(volitional interpretation)의 색채를 띠게 된다. 그러므로 ‘Boys will be boys.’는 ‘Boys insist on behaving like boys.’를 의미한다.

2) SHALL의 다의성

일상의 구어체 영어에서 SHALL은 실제로 1인칭 주어에만 한정되어있다. 일반적으로 두개의 *root meaning*이 있는데, 하나는 WILL= ‘intention’과 유사한 ‘intention’이고 또 하나는 주로 의문문에서 청자의 소망을 나타내며, *epistemic meaning*으로 ‘prediction’ 하나뿐이며, 보다 공식적인 구어체 텍스트나 문어체 자료에서 제한적으로, 특히 법률 언어에서 ‘obligation’ SHALL을 찾아볼 수 있다.

(1) ‘intention’

A: *No. I don't want one. You have it.*

B: *I shall save it up. We'll share it.*

(2) ‘addressee's volition’

Shall I ring at 11 p.m. one night in the week after you get back?

(3) ‘prediction’

A: *Just water.*

B: *Otherwise I shall end up like the song the seven drunken knights.*

(4) ‘obligation’

Before passing a sentence of Borstal training in the case of an offender of any age, the court shall consider any report made in respect of him by or on behalf of the Prison Commissioners.

shall I + agentive verb 구문은 대체로 ‘do you want me to ...?’를 의미하며 청자의 소망에 관계하는데 *will I*와 뚜렷하게 구별된다. 다음 두 문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agentive*와 *non-agentive* 양쪽으로 쓰이는 동사가 포함된 *minimal pairs*를 살펴보면, (5)는 동사가 *receive*(*non-agentive*)의 의미를 갖는 순수한 의문문인 반면, (6)은 동사가 *make*(*agentive*)를 의미하며 청자의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느낌을 나타내어 ‘Would you like me to get a cup of coffee?’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또한 두 문장의 *time reference*도 다른데, (5)는 미래인 반면, (6)은 발화 시점에서 청자의 소망에 관계되는 현재이다.

(5) *Will I get a cup of coffee?*

(6) *Shall I get a cup of coffee?*

대개 WILL= ‘predictability’은 2, 3인칭 주어와 SHALL= ‘predictability’는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이나, 학교에서 이런 규범적 교수·학습에도 불구하고 *epistemic* SHALL은 1인칭에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epistemic* WILL은 1, 2, 3인칭에 아주 빈번하고 자유롭게 쓰이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IV. 다양한 미래 표현

1.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

영어로 미래를 나타내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Leech, 1971, p. 56).

Will/shall + Infinitive: The parcel *will arrive* tomorrow.

Be going to + Infinitive: The parcel *is going to arrive* tomorrow.

Present Progressive: The parcel *is arriving* tomorrow.

Simple Present: The parcel *arrives* tomorrow.

Will/shall + Progressive Infinitive: The parcel *will be arriving* tomorrow.

1) 미래 표시의 단순 현재

시간이나 조건을(if, unless, when, as soon as, as, etc.) 나타내는 종속절에서 WILL/SHALL의 구문 대신에 현재 시제가 미래를 나타낸다.

- (1) *I'll tell you if it hurts.*
- (2) *When the spring comes, the swallows will return.*
- (3) *Jeeves will announce the guests as they arrive.*

단순 현재는 미래를 지시하는 *that*절과 관계사절에서도 WILL/SHALL의 구문 대신 사용될 수 있다.

- (4) *I hope you enjoy the ride.*
- (5) *Just suppose we miss the plane.*
- (6) *Make sure you get up early.*
- (7) *The man she marries will have to be rich.*

2) WILL/SHALL + progressive infinitive

will/shall be working 구문은 일반적인 진행상의 규칙에 따르면 미래의 시간적 상황을 가리키며 아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어날 행위는 'temporal frame'을 만들어 미래의 시점과 관련되어 있다.

- (1) *This time next week I shall be sailing across the North Sea.*

대강 *FUTURE-AS-A-MATTER-OF-COURSE*로 요약되고, 미래의 사건은 아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계된 사람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게 된다(Leech, 1971, p. 56).

(2) *Will you put on another play soon?* ('Please!')

Will you be putting on another play soon? ('Is this going to happen?')

(2)의 첫 번째 문장은 의문문이지만 청자의 의지를 나타내어 가벼운 명령처럼 보이며 (2)의 두 번째 문장은 단순히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묻는 순수한 의문문이다. 이렇게 WILL/SHALL + *Progressive* 용법이 일상 영어에서 자주 쓰이는 이유는 *non-progressive form*보다 공손하고 임기응변의 대안이기 때문이다. (2)의 두 번째 문장은 청자에게 어떤 압박감을 주지 않으며 앞으로의 연극 프로그램에 대한 공손한 관심을 나타낸다.

3) 현재 진행형과 WILL(BE GOING TO)

BE GOING TO + *Infinitive*와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형은 현재에 예견된 미래의 일을 나타내지만, 실제 진행형이 의미하는 것은 현재의 의지나 원인이 아니라 'present arrangement'이어서 진행형의 정확한 정의는 'future event anticipated by virtue of a present plan, programme or arrangement'로 요약될 수 있다.

(1) *She's getting married this spring.*

(2) *Next they're playing the Schubert Octet.*

(3) *We're having fish for dinner.*

(4) *I'm inviting several people to a party.*

위 예문들은 모두 이미 계획을 담고 있다. 즉 (1)에서는 그녀는 이미 결혼이 결정되어 준비되어 있고, (2)에서는 음악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준비되어 있고, (3)에서는 메뉴가 이미 선택되었으며, (4)에서는 파티는 이미 열리기로 결정된 것이다. 또한, *present progressive*의 미래의 의미에서 'plan'이나 'arrangement'의 요소는 주로 주어와 행위자이고 동작 동사인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5) *John is rising at 5 o'clock tomorrow.*

**The sun is rising at 5 o'clock tomorrow.*

(5)의 두 번째 문장은 어색한데 태양이 뜨는 것은 일부러 계획된 것이 아니라 자

연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BE GOING TO*가 나타내는 미래가 *present progressive future*보다 그 적용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It is going to rain tomorrow.'는 현재의 상황에 근거한 예측으로 가능한 문장이지만 'It is raining tomorrow.'는 어색하다.

2. WILL과 BE GOING TO의 비교

Coates(1983), Haegeman(1981, 1983), Palmer(1990) 등의 학자들이 WILL과 *BE GOING TO*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Haegeman(1981, pp. 287-308)의 주장을 요약하면, '*be going to* focuses on the present state of affairs, while *will* focuses on the future'인데,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informal or colloquial style*과 *BE GOING TO*의 관련성에 대해 과소평가했고 용법에 있어서 스타일의 문제가 중요하게 반복되는 주제이므로 'future orientation'과 'present orientation'의 용어로 WILL과 *BE GOING TO*를 구별해서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Westney, 1995, p. 188). *BE GOING TO*가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에서 동등하게 구어체 영어에서 사용된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용인된 듯하다.

Wekker(1987, pp. 123-124)는 비형식적이고 구어체 영어에서 *BE GOING TO*를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비교적 드물긴 하지만 문어체 자료에서는 소설이나 저널리즘에 제한적으로 사용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문어체 자료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다 쉽게 이해가 될 것 같다. 대개 작가들이 소설에는 구어체 언어를 자주 사용하게 되고, 신문의 기사가 개인의 기고물일 경우 그 언어는 비형식적이거나 구어체인 경우가 종종 있다.

Wekker (1987)와 Palmer(1990)는 일기 예보에서 스타일의 차이가 중요함을 역설한다. 예를 들어 일기 예보를 할 때 예보관들은 WILL이나 *BE GOING TO*를 둘 다 사용하는데, 종종 *BE GOING TO*로 시작하다가도 WILL로 바꾸는 때가 있다. 일기 예보가 글로 쓰여 있을 때는 대체로 WILL를 사용하는데, 자신이 듣거나 읽은 일기 예보를 무심코 예보하는 사람은 대개는 *BE GOING TO*만을 사용한다. 이런 경우 WILL이나 *BE GOING TO* 둘 다 'prediction'의 의미를 담고 있으나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오로지 스타일의 차이라고 여겨진다. 그것은 의미론적, 화용론적 정당성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기도하다.

화자의 발화가 *present time*(*BE GOING TO*)에 속하는지 *future time*(WILL)에 속하는지에 따라 WILL과 *BE GOING TO*의 용법이 구별된다는 것은 학자들 사이에 널리 인정되고 있는데, 이런 개념은 현재에서 미래의 상태로의 이동을 시사하는 *BE GOING TO* 형태 자체에서 알 수 있고(Traugott, 1972), 그 역사 또한 같다.

Binnick(1971, p. 49)은 라틴어의 기동동사(inchoative verbs)와 관련하여 ‘초기 미래(nascent future)’를 나타내는 ‘inceptive present’와 미래의 과거(aorist of the future, a distinct future reference tense)를 나타내는 WILL을 다루는 문법을 1751년에 확립하였는데, 최근에 와서는 Jespersen(1949, pp. 217-218)도 *BE GOING TO*와 *present time*의 상호 근접성을 강조하였다.

1) *The rock will fall.*

2) *The rock is going to fall.*

위 두 문장이 독립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1)은 완전한 의미를 갖기가 힘든데, 그 이유는 문장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부적절한 문맥 때문일 것이다. 2)문장과 비교되는 1)문장은 불완전하고 있어야 할 어구가 빠져있는 느낌을 갖게 하여 *if you push it*와 같은 어떤 미래를 표지하는 명제가 요구된다. Larkin(1976)도 ‘Hang on! We’re going to crash!’와 달리 ‘Hang on! We’ll crash!’와 같은 표현은 이상하다고 말한다.

3) *You’re going to be fired if you ever go near his computer.*

4) *You will be fired if you ever go near his computer.*

5) *You’re going to be fired if you go on like this.*

위에서 3)과 4)는 미래의 조건절을 담고 있는데(여기서 부사 *ever*는 미래의 사건을 표지한다), 3)은 현재의 문맥을 필요로 하는 *BE GOING TO*의 용법과 모순되는 상황이 나타났다. 반면에 5)는 조건절이 *present time*에 맞게 쓰여 *BE GOING TO*의 용법과 해석에 적절하다.

3. 조건절에서의 WILL

많은 학자들이 조건을 나타내는 종속절에 쓰인 WILL은 의지를 나타내는 것에 동의하는 것 같다. Palmer(1974)는 *John will come*에 쓰인 WILL은 어색하지만 *If John will come*에서는 분명히 의지를 표시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pure future will’은 ‘volitional will’과 달리 *if* 절에 나타나지 않는다. Palmer(1974, p. 106)는 *If he’ll come tomorrow*에서 WILL은 의지를 나타내어 ‘If

he agrees to come tomorrow'으로 환언할 수 있다고 말하고, Leech(1971, pp. 59-60)도 조건이나 시간의 접속사(*if unless, when, as soon as, as, etc.*)가 이끄는 종속절에서 미래는 WILL/SHALL구문이 아니라 현재 시제로 표시되며(I'll tell you if it hurts./ When the spring comes, the swallows will return./ Jeeves will announce the guests as they arrive.), 그 구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When *will* appears in dependent conditional or temporal clause, it requires a volitional interpretation, because the sense of 'prediction' is not available in that position: *If you will*(i.e. 'are willing to') *love me, we shall happy.*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WILL/SHALL의 변화를 살펴보면 SHALL의 경우, 고대 영어 시대부터 쓰인 채무, 도덕적 의무, 필요성, 의무, 명령, 지시, 예측, 예언, 순수한 미래 등의 의미 중 채무의 의미는 중세 영어까지 쓰이다가 초기 현대 영어에 이르러 쓰이지 않게 되고, 의무, 필연성, 명령 등의 의미는 현대 영어이후에 일부 법률 용어 등에 존재하나, 대개의 경우 대부분 다른 서법형이나 동사들로 대체되었다. 특히 예언의 SHALL은 이들 조동사 용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WILL의 경우는 고대 영어부터 쓰인 의지, 욕구, 등 원래의 의미와 의도, 결심, 자발성, 습관, 성향, 능력, 미래 등의 의미들 중 대부분은 중세 영어와 현대 영어에 그대로 사용되었고, 일부 강한 의지를 갖는 의미는 서법형이나 동사로 대체되었고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Fries(1925)는 16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의 드라마와 희곡을 조사한 것을 기초해서, 전통적인 규칙은 “인위적”이고, “자의적”이며, 객관적 타당성 없이 언어 관습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통계에 따르면 언어의 관습을 — 특히 평서문 1인칭, 직접의문문 2인칭, 종속절 2, 3인칭에서 —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반영한 적도 없고, 또한 *Shall you?*는 2인칭 의문문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대체로 미국 영어의 용법에서는 1인칭 직접의문문을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 SHALL이 사라져가는 일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영국 영어의 자료에서도 실제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WILL의 비율이 SHALL보다 약간 높다. 그러나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의 WILL/SHALL의 용법의 차이는 1인칭 간접화법 종속절에서 현저하다. 지금까지 1560년에서 1915년까지의 영국 드라마에 나타난 WILL/SHALL의 용법과 1900년대 초기에 쓰인 영국 희곡과 미국 희곡 각 각 18편에 나오는 WILL /SHALL의 용법

을 수치상으로 비교 분석해보면,

첫째, 통계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학교 문법의 전통적인 WILL/SHALL의 규칙이 영어의 관습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또한 나타낸 적도 없는 것 같다. 1인칭 독립 평서문에서 WILL이 70%이상 사용되었으며, 1560년 이후로 빈도수의 큰 변화는 없었다. 2인칭 직접의문문에서는 WILL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서 97%이상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2인칭 의문문의 SHALL이 1인칭 의문문의 WILL보다 빈도가 훨씬 낮았다. 또한 현대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의 2, 3인칭 모든 종속절에서 WILL이 단연 우세하였다.

둘째, 1560년에서 1915년까지의 조사에 나타난 수치는 2, 3인칭 독립 평서문에서 WILL /SHALL의 용법의 변화를 잘 나타내는데, 2, 3인칭에서 초기에 비교적 자주 사용되던 SHALL이 18, 19세기를 거치면서 WILL로 대체되었다.

셋째, 현대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의 용법을 비교한 수치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WILL이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데, 1인칭 간접화법절에서 미국 영어 용법에서 WILL이 86%, 영국 영어 용법에서 SHALL이 71%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인식적 기능에서 WILL과 *BE GOING TO*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현대 영어에서는 두 형태의 용법차이가 흐려지는 경향이 있으나 *predictability*에 있어서는 화자의 의도나 청자의 느낌에 큰 차이가 있다. 대개 WILL= 'predictability'는 2, 3인칭 주어와 SHALL= 'predictability'는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이나, 학교에서 이런 규범적 교수·학습에도 불구하고 *epistemic* SHALL은 1인칭에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epistemic* WILL은 1, 2, 3인칭에 아주 빈번하고 자유롭게 쓰이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예측을 나타낼 때 *epistemic* SHALL이 *epistemic* WILL보다 더 많이 쓰이지만 의미가 'prediction'보다 'predictability'에 가까운 경우는 과학이나 문학에 관련된 공식적인 텍스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WILL= 'predictability'와 마찬가지로 단 하나의 사건을 지칭하지 않고 'Whenever X, then y'('Whenever we think of poets who die young, it's predictable that we won't remember them with failing powers.')의 의미를 지닌다. 'The rock will fall.'은 *if*나 *when*같은 상황이 계재되지 않으면 아주 어색한 문장이며, 'The rock is going to fall.'은 청자와 화자 사이에 이미 설정된 현재 상황을 보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is*가 이미 시제를 나타내고 있는데, WILL과 *BE GOING TO*의 비교는 과거와 현재 완료의 비교와 유사하다. 미국 본토의 아이들은 *BE GOING TO*만 쓰는 경향이 있는데, 아이들은 청자와의 *negotiation*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심지어 원어민들도 두 형태를 구분하지 못하고 직관적으로 사용하는 현 상황에서 비 원어민들은 분명히 구별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WILL/SHALL의 용법은 원래 본동사였던 두 동사가

지녔던 의미를 벗어날 수 없었기에 다양한 의미로 발전되어 많은 혼란을 주었으며, 특히 WILL과 SHALL이 인칭과 결합되어 나타날 때 서법성을 띠게 되어 그 의미와 용법이 기존의 전통 문법으로는 완전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 의미론적, 화용론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WILL/SHALL이 단순히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문이며, 어떤 형태로든 화자와 청자의 협상이나 심리적 관계를 이해하지 않고는 두 조동사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WILL/SHALL의 통시적, 공시적인 이론적 기초와 바른 용법의 방향을 제시해본 것으로서, 영어 교실 수업에서 이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동시에 폭 넓은 검증 자료와 분석을 통해 WILL/SHALL에 관한 후속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부자. (2006). 의사소통 능력을 높여주는 어휘 지도에 대한 연구: 동사를 중심으로. *영어어문교육*, 12(1), 132-133.
- 김익태. (1987). *조동사 WILL과 SHALL의 역사적 고찰*.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임병민, 구양숙. (2004). 초등영어에서 인형극을 활용한 듣기말하기 능력신장방안. *영어어문교육*, 9(2), 2-3.
- Binnick, R. I. (1971). *Will and Be Going To*. Papers from the Sevent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Department of Linguistics, University of Chicago, 40-52.
- Binnick, R. I. (1972). *Will and Be Going To II*. Papers from the Eight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Department of Linguistics, University of Chicago, 3-9.
- Bradley, C. B. (1911). *Shall and Will: An historical study transaction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 Chomsky, N. (1957). *Syntactic Structures*. The Hague: Mouton.
- Coates, J. (1983). *The semantic of the modal auxiliaries*. London: Croom Helm.
- Curme, G. O. (1931). *Syntax*. Boston: D. C. Heath and Company.
- Curme, G. O. (1931). *Syntax*. Boston: D.C.Heath and Company.
- Ehrman, M. E. (1966). *The meanings of the modals in present-day American English*. The Hague: Mouton.
- Fries, C. C. (1925). The periphrastic future with *Shall* and *Will* in modern

- English. *PMLA*, 40, 963-1025.
- Haegeman, L. (1980). *Have To* and progressive aspect. *Journal of English Linguistics*, 14, 1-5.
- Haegeman, L. (1981). Modal *Shall* and speaker's control. *Journal of English Linguistics*, 15, 4-9.
- Haegeman, L. (1983). *The semantics of Will in present-day British English: A unified account*. Brussel: Paleis Der Academien-Hertogsstraat.
- Haegeman, L. (1989). *Be going to* and *Will*: A pragmatic account. *Journal of Linguistics*, 25, 291-317.
- Jespersen, O. (1949).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 Jespersen, O. (1956).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 Jespersen, O. (1958).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 Larkin, D. (1976). Some notes on English modals. *Syntax and Semantics*, 7, 392-393. NY: Academic Press.
- Leech, G. N., & Svartvik, J. (1975). *A communicative grammar of English*. London: Longman.
- Leech, G. N. (1971). *Meaning and the English verb*. London: Longman.
- Lowth, B. R. (1762). *A short introduction to English grammar*. Menston: Scholar Press.
- Lyons, J. (1977). *Semantics II*.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etzer, E. A. F. (1865). *An English grammar: Methodical, analytical, and historical*. Translated by Grece, C. J. (1904), London, John Murray, Reprinted (1962), Tokyo, Senjo I.
- Mason, G. (1622). *Grammaire angloise*. Menston: Scholar press.
- Molly, G. (1897). *Irish difficulty: Shall and Will*. London: Blackie & Son Ltd.
- Mosse, F. (1975). *A handbook of middle English*.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Palmer, F. R. (1974). *The English verb*. London: Longman.
- Palmer, F. R. (1979). *Modality and the English modals*. London: Longman.
- Palmer, F. R. (1986). *Mood and mod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lmer, F. R. (1989). Why future tense?. *English Today*, 5, 4-59.

- Quirk, R., Greenbaum, S., Leech, G., & Svartvik, J. (1972).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London: Longman.
- Quirk, R., Greenbaum, S., Leech, G., & Svartvik, J.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Sweet, H. (1952). *A new English grammar*. Oxford: Clarendon Press.
- Traugott, E. (1972). *The history of English syntax*.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 Visser, F. T. (1963). *An historical syntax of the English language*. Leiden: Brill.
- Wallis, B. J. (1653). *Grammatica linguae anglicanae*. Menston: Scolar Press.
- Ward, W. (1765).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York: C. Etherington.
- Wekker, H. C. (1987). Points of modern English syntax LXIX. *English Studies*, 68, 456-463.
- Westney, P. (1995). *Modals and periphrastics in English*. Tubingen: Max Niemeyer Verlag.
- Wright, J., & Wright, E. F. (1924). *Old English grammar*.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예시 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Secondary/College

강문구

공주대학교 영어교육과

330-190 충청남도 천안시 청수동 183

Tel: 016-645-0456

Email: kangmunkoo@hanmail.net

Received in July. 2006

Reviewed by Aug. 2006

Revised version received in Sept. 2006